

목 차

■ 평화, 인도주의 그리고 번영

Executive Summary 1

1. 동북아 물류 중심 국가의 비전 2

2. 평화와 번영의 길 4

3. 인도주의의 길 12

■ HRI 경제 지표 18

평화, 인도주의 그리고 번영

□ 동북아 물류 중심 국가의 비전

- 싱가포르는 지리적 이점을 활용하여 물류기능으로 많은 국부를 창출하였음
-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남북관계 개선이 이루어져 남북철도를 대륙과 연결할 수 있다면 물류기능을 통해 막대한 국부를 창출할 수 있을 것임

□ 평화와 번영의 길

- **평화는 번영의 기초** : 울산은 이미 1인당 소득이 3만달러가 넘으며, 환경과 경제 성장, 그리고 정당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달성하는데 성공한 모범적인 케이스임
 - 하지만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면 그러한 발전의 성과는 한순간에 잿더미로 변해버릴 것이며, 평화야말로 이 모든 번영의 전제 조건인 것임
- **한반도 전쟁위기** : 2.13 북핵합의는 한반도의 전쟁위험을 상당히 줄여주었음.
 - 과거 94년 핵위기때는 전쟁직전의 상황에까지 갔음
 - 작년 7월,10월의 미사일과 핵실험시에도 그에 못지 않은 위기상황이었음
 - 우리가 그간에 어렵사리 성취한 것들이 전쟁이 나면 한순간에 파괴되며 따라서 북한이 나쁘기 때문에 혼을 내줘야 한다는 식의 합리성이 결여된 이념적 증오심만으로 냉전적인 대응을 하는 것은 자제해야함
- **남북 관계의 진전** : 지난 남북관계의 진전에 있어 금전적 손실을 무릅쓰면서까지 헌신적으로 금강산 관광 등의 경협사업을 추진한 현대아산의 공헌은 매우 큼
 - 남북관계의 진전이 개성공단의 성공 및 남북 철도 연결로 이어지고, 마침내 대륙과의 철도연결에 이르면 한반도가 물류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고 동아시아 번영과 평화의 축이 될 수 있을 것임

□ 인도주의의 길

- **정보화시대의 기업 이미지 원천** : 정보화 시대에는 과거와 같이 광고나 선전만으로는 기업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소비자들에게 심어줄 수 없음.
 -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는 인도주의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오래동안 소비자들에게 감동의 울림을 남길 수 있음
- **인도주의에 입각한 남북관계 설정** : 선진적인 개인, 기업, 국가란 억울하게 고통 받는 사람들을 위해 성실하고 신속하게 일하는 사람, 기업, 국가를 의미함
 - 이러한 인도주의가 남북관계 설정에서 우리가 추구해야할 길임

평화, 인도주의 그리고 번영

- 출처 : 현대그룹 월례동향보고회의
- 일시 : 2007년 5월 7일
- 연사 : 한완상 대한적십자사 총재

1. 동북아 물류 중심 국가의 비전

최근에 제가 울산을 두 번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작년 연말에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 중동 지역 적십자 총회에 다녀왔는데, 제가 옛날에 느끼지 못한 것들을 싱가포르와 울산에서 느꼈습니다. 그 이야기부터 오늘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싱가포르는 여러분들께서 아시다시피 1인당 국민소득이 3만달러가 넘어서는 나라이고, 그 나라 사람들 스스로가 우리 한국과 비교하여 두 가지 점에 있어서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네의 교육과 영어 수준이 한국보다 훨씬 뛰어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세계화의 역사 흐름에 아시아에서 일본보다 앞서고 있다는 사실, 일본 사람들보다 싱가포르 사람들이 영어도 잘한다는 사실에 대해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자긍심이 있어서 교육 제도에 대해서는 싱가포르가 일본한테 절대로 안 진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미국이 자신들을 벤치마킹 하려고 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한국의 한류바람이 있다 하더라도 교육제도에 있어서는 싱가포르가 한 수 위다. 그래서 대학 교육을 통해서 배출되는 국가, 기업, 공공, 시장 부문에서 21세기를 선도하는 인력들을 길러내고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어요. 굉장히 부러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한나절 시간이 있어서 싱가포르를 관통하는 케이블카를 탔습니다. 안내를 받아서 가는데 섬과 섬 사이를 지나다 보니까 컨테이너가 무지하게 쌓여있는 부두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저 부두에 있는 컨테이너의 물량이나 왕래하는 빈도가 부산보다 많습니까? 했더니 부산은 상대가 안 됩니다. 세계에서 싱가포르가 최고입니다. 그러면서 싱가포르가 도시국가로써 인구는 500만 남짓 밖에 안 되는 데 1인당 소득이 높은 것은 말라카 해협이라고 하는 길목을 차지해 가지고 제조업에서 다른 나라보다 떨어지면서도 그 길목에 앉아있는 덕에 봉이 김선달이 대동강 물 팔아먹듯이 물류 센터, 허브로써 엄청난 경제적인 이득이 있다. 그런 이야기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뭘 생각했느냐 하면 아하! 부산에서 동해선으로 TKR(Trans Korea Railroad)가 되어서 TSR(Trans Siberia Railroad)이 이어지고 부산에서 신의주로해서 TCR(Trans China Railroad)로 이어지게 되면 결국 우리 한반도 자체가 하나의 엄청난 물류 센터가 되지 않겠는가. 나에게 설명해 준 사람이 한말이 결국은 말라카 해협을 지나가는, 싱가포르 항구를 지나가는 가장 많은 배가 아시아에서는 일본 배들이고, 일본에서 유럽이나 아프리카로 가는 수출물량들이 다 배로 그쪽으로 지나간다는 말입니다. 역시 우리 대한민국도 상당히 될 것 같고 현대상선도 그리로 많이 지나가는 걸로 알고 있고 대만 같은 나라도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TKR(Trans Korea Railroad)과 TCR(Trans China Railroad), TSR(Trans Siberia Railroad)이 이어지는 일이 곧 몇 년 내로 실현이 된다면 일본이 반드시 말라카 해협으로 배로 갈 이유가 없단 말입니다. 부산에서부터 철도로 가면 첫째로 배보다 빠르고 둘째는 물건이 안전하게 보호받으면서 수송이 되고 또 물류 비용도 어떤 학자에 의하면 총량의 3분의 1은 절약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만약 그런 효과가 난다면 이것은 대단한 발전입니다. 물류가 차지하는 경제 비용이 21세기에는 점점 커지기 때문에 이게 싱가포르가 물류 기능으로 인해서 국부를 창출하는 것처럼 우리는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철도로 국부를 창출하겠구나 그런 걸 느꼈습니다. 아주 절박하게 느꼈습니다. 가슴이 안타까워지는 그런 느낌으로 그 걸 느꼈습니다.

2. 평화와 번영의 길

■ 평화는 번영의 기초

저는 적십자 일로 울산에 적십자 지사 회장 이취임이 있어서 한달 반 전에 갔다가 또 여성 봉사 특별 자문회의 총회가 거기에서 있어서 한달에 두 번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울산에 가서 몇 가지 느낀 바가 있습니다. 울산도 1인당 소득이 3만 8천달러라고 하는데 그건 조금 과장된 것일테지만 만약 3만달러만 된다고 하더라도 대단한 수준인겁니다. 어떻게 해서 울산에 갈 때 마다 비행기 위에서 보거나 땅에서 볼 때 느끼는 것이 두 가지였습니다. 친환경적인 경제 성장과 발전과 번영이 가능하다 라는 것입니다. 박맹우 울산 시장께서 저한테 자랑을 합니다. 연어 떼가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환경적인 경제성장이게 옛날 우리 군사 권위주의때에는 상상하기 힘들었습니다. 지금도 아직 친환경적인 경제 성장이나 번영이 쉽지 않은데 울산은 연어 떼가 올라올 정도가 되고 개울물이 굉장히 맑아진 것을 봤고 그래서 환경을 보호하면서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이상의 성장이 가능하구나, 이게 하나의 모델이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노조원들과 식사를 해 봤는데 거기에 노사 분류가 없는지 10년이 넘었답니다. 이러한 노사 화합의 열매를 누가 따먹는고 하니 시민들이 따먹습니다.

결국 노사가 안 싸우니까 그 열매는 시민들한테 돌아가서 그 열매의 사이즈가 1인당 3만달러가 넘었습니다. 이래서 노사 화합의 결과로 성장이 더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것은 우리가 벤치마크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제가 서울대학교 교수로 있던 '70년대 '80년대는 노동조건이 하도 열악하고 노동 삼권 자체가 허용이 되지 않아서 전태일 분신 사건 같은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때는 노동운동이라는 게 민주화 운동의 아주 핵심이어서 저도

노동 운동을 밀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노조가 일종의 권력투쟁단계로 들어간 것 같은 인상을 줍니다. 그래서 권력투쟁을 심하게 하는 기업은 그 기업이 있는 지역 주민에게 소득을 안겨다 줄 가능성이 참 적다는 걸 여기에서 느낀 것입니다.

효율성을 증가시키면서 소위 정당성은 훼손시키는 게 우리 지난날 60년 동안의 한국적 경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독재를 통해서 경제가 발전하는 거지요, 싱가포르도 그랬던 것입니다. 그런데 울산 경우는 독재를 안하고도 효율성과 정당성 이 두 가지를 달성했습니다. 정당성이라는 게 정치적인 정당성이니까 곧 민주주의를 한다는 거지요. 민주주의와 경제성장을 같이 할 수 있는 때가 왔다. 이제는 옛날처럼 경제성장하기 위해서 독재를 해야 된다는 이 논리가 안 먹혀 들어갈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쇼윈도가 울산이구나, 그런 점에서 울산은 싱가포르보다 한 수 위라는 걸 느꼈습니다. 싱가폴은 아직도 권위주의적 시스템입니다. 거기는 수상이나 장관이 월급을 엄청나게 받고 그 대신에 부정부패를 가차없이 처벌합니다. 하지만 거기는 정치적인 자유, 언론의 자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대통령을 면장보다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유롭게 얘기하는 그런 참여민주주의적인 표현의 자유를 만끽하면서도 그렇게 성장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우리가 확실히 선진국으로 들어선 한 창구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울산의 모습을 비행기에서 내려다 보면서 한반도의 평화라고 하는 것이 절대로 필요하구나. 저런 성숙한 발전이 가능한 것은 평화가 있다 라고 하는 전제 하에 가능하다. 만약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난다고 하면 내 눈에 보이는, 지금 400미터 500미터 밑에 보이는 저 모든 공장의 시설, 배, 자동차, 이게 한꺼번에 다 잿더미가 되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얼핏 들었습니다.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민주주의나 경제 성장 무엇이든 간에 하루아침에 열매의 싹을 없애고 잿더미화 할 수 있는 무서운 재앙이구나 라는 걸 가슴으로 느꼈습니다.

■ 한반도 전쟁위기

지금 2.13 합의라고 해서 6자 회담 틀 속에서 합의가 되어서 삐걱거리지만 그 대로 가는 것 같은데, 이것이 생겨서 한반도의 전쟁위협이라는 게 상당히 줄어든 건 사실입니다. 작년 7월에 북한이 미사일 쏘고 10월에 핵 실험하고 10월 이후에 아주 긴박한 그 순간에 세계적인 케이블 방송 CNN에서 래리 킹 라이브를 제가 보는데 미국 CIA 테넷 국장이 나와서 1시간 정도 이야기 했습니다. 또 작년 연말에 미국의 카터 전 대통령이 래리 킹 라이브에 나와서 1시간을 이야기하는데 그 이야기는 제가 대충 다 아는 이야기였습니다.

이런 이야기였는데, 1994년 봄에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날 뻔 했다. 왜냐하면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이 영변 핵 시설을 정밀 폭격하려고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밀 폭격하려고 결정했을 때, 마침 주한 미 대사가 저와 절친한 친구였기 때문에 하루는 미대사관 관저에 가서 같이 점심을 먹었습니다. 먹다가 저한테 말 했습니다. 남한에 있는 미군, 민간인들 소개령이 내릴 것이다. 그래서 제가 한쪽으로 깜짝 놀라면서 농담이겠지 했더니, 아니라고 해서, 전쟁한단 말입니까? 했더니, 전쟁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데 친구니까 미리 알려준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미국 민간인들을 소개한다 이건 전쟁에 들어간다는 이야기지요. 저는 아찔했습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언론에 새 나가서 사재기가 생기고 그런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의 위기를 넘기게 된 계기가 카터 전 대통령이 북한에 방문한 것입니다. 한국에 긴박한 상태가 와서 만약 미국이 북한에 핵시설을 폭격하게 되면 북한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 전쟁이 될 것인가, 그리고 전쟁이 터지면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알고 싶어서 여기 한국에 있는 미8군 사령관한테 물었습니다. 그런데 사령관 대답이 남쪽이 전쟁이야 이기겠지만 결과는 첫째, 전쟁이 일어날 경우 몇일 내에 서울을 중심으로 최소 100만명이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깜짝 놀랄 이야기지요. 지금 생각하면 더 놀랍습니다. 이라크 전쟁을 미국이 몇 년째 합니다. 4, 5년째 하고 있는데 4천명 가량 죽었는데 며칠만에 적어도 백만명이 죽는다면 끔찍스러운 거지요. 그리고 군사비가 1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90조에서 100조 가까이 든다.

그러면 경제적인 코스트는 얼마나 거의 그 10배 정도, 1조달러 정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작은 핵시설 하나 폭격해서 사람 100만명 죽고 그래서 미국 최고위가 이 건 너무 비싼 전쟁이다 그래서 카터를 보내서 김일성 주석과 만나서 남북 정상회담을 끌어냈습니다. 그리고 그해 10월 20일에 제네바 합의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걸 제가 잘 알고 있는데, 그것이 그동안 그런 위기감이 없다가 작년 7월과 10월에 다시 그런 위기감이 왔습니다. 그래서 카터가 지난 연말에 이걸 한 것 같아요. 제가 여기에서 말씀 드린 건 포인트가 뭘고 하니 카터가 그때 불과 6개월 전에 염려했던 것이 또 다시 한반도의 전쟁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이번에는 정말 무서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무섭다는 것이 저는 관념적으로 들은 게 아니고 가슴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왜냐하면 울산이나 포항이나 구미나 이런 다른 지역에 우리 그간에 여러가지 악조건 속에서 성취해 놓았던 것이 하루아침에 잣더미가 될 것은 너무나 뻔한 이야기라는 말입니다. 그런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고려 없이 북한이 미우니까 한번 붙자. 저건 맛 좀 보여줘야 된다. 단순히 아주 감정적이고 이념적인 증오심으로 한번 혼내줘야 된다. 이런 단순한 냉전적인 대응으로 해결될 수 없는 것입니다.

■ 우리나라의 놀라운 발전

여러분, 우리가 오늘 국민 1인당 소득 2만달러 가까이 되고 또 어떤 지역은 3만달러가 넘었습니다. 거제, 구미, 포항, 울산을 넘어서 이런 성장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되는 이런 마당에 만약 전쟁을 냉전적인, 아주 증오의 관점에서 불러일으킨다고 할 때 이 모든 성취는 하루아침에 다 깨집니다. 여러분, 이 성취가 어떻게 우리가 이룩한 성취입니까? 우리가 멀리 보면 20세기 100년 동안 첫 36년은 일본에 식민지로 떨어져서 경제적인, 문화적인, 정치적인 수탈과 억압당한 건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 후배 학자들 가운데 그래도 일본이 식민지 36년 하는 동안 한국의 경제적 근대화를 이룩한 인프라를 구축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말은 객관적으로 맞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철도도 놓아줬고 근대적 시설, 서울역

을 위시해서 한국은행 같은 것도 지었고 현대적인 교육 시설을 가졌던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께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건 사실이라는 점입니다. 보이는 사실 뒤에 있는 진실은 무엇이나 하면 일본 사람들이 대륙 침략을 우회한 병참 시설, 효율적인 물류 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우리 민족 조선 민족 2천만 사람들의 복지와 행복과 복리를 위해서 토지 조사를 하고 철도를 놓고 현대 건물을 세우고 교육과 병원 시설을 한 게 아니고 자기들이 대륙 침략을 위한 최소한의 병참 기지, 물류, 시설의 확보를 위해서 한 것입니다.

36년간 우리는 식민지로 있으면서 고생했지요. 전쟁은 일본이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진 건 일본입니다. 그러면 전범국이 둘로 쪼개져야지 왜 전범국의 식민지로 억울하게 고생했던 우리가 둘로 쪼개져야 합니까? 유럽에서는 2차세계대전 일으킨게 독일 히틀러 정권이었습니다. 히틀러 정권이 졌습니다. 그러니까 동서 둘로 쪼개졌지요 전범국이니까. 그런데 만약 전범국이었던 독일은 통일이 되고 옆에 있던 프랑스가 두 조각이 났다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도무지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게 우리 한반도는 지난 60년간 정상적인 걸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난 그것이 분통이 터집니다. 왜 전범국인 일본은 통일이 되고 우리는 억울하게 분단이 되어 가지고. 그저 분단입니까? 분단되고 나니까 이념적으로 싸우고 군사적으로 싸우고 냉전으로 싸워 가지고 서로 상처내기 60년, 서로 상처투성이가 되어 가지고, 여러분, 미워하는 비용이 얼마나 많이 드는 지 아십니까? 열전의 비용도 많이 듭니다. 열전에는 무기와 수단이 필요하니까, 냉전은 그런 게 없는 것 같으면서도 상대방을 심리적으로 슬슬 죽이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드는 비용이 굉장히 비쌉니다. 미워하는 사람들 엔돌핀이 안 나오기 때문에 빨리 죽을 가능성이 있고 병원에 자주 가고 심리적인 치료까지 합치면 냉전비용은 굉장히 그렇습니다. 부부간에 냉전 오래하면 아이도 이상하게 삐뚤어지고 그 가정도 이상하게 파탄이 납니다. 차라리 화끈하게 열전하고 헤어져 사는 게 낫지 냉전 오래할 것 못 됩니다. 우리는 열전 3년하고 냉전 60년간 해 왔습니다. 냉전 비용 경제학자들이 계산하면 엄청납니다.

그런 악조건 속에서도 우리는 이제 국민 1인당 소득 2만불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세계에 나가면 경제적으로도 중진국은 확실하고 어떤 분야는 세계를 선도합니다. 철강 자동차도 그렇고, IT쪽도 괜찮은 것 같고 여러 가지 유비쿼터스 쪽은 굉장하기 때문에 엘 고어 전 부통령 같은 사람이 입을 짝 벌리고 찬탄하는 단계까지 갔습니다. 그런 악조건 속에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악조건 속에서 이만큼 왔는데 일본은 어떻느냐. 자기들은 전범국이면서도 분단의 피해는 하나도 안 받고 우리가 열전하던 6.25 3년 동안 그들은 닛산이라고 하는 트럭을 위시해서 군수물자를 팔아서 그야말로 잿더미에서 오늘의 경제 최대 강국으로 떠올랐습니다.

비유컨대, 우리는 권투를 하는 데 한쪽 손이 완전히 묶여서 한쪽 손으로 째하면서 권투를 해서 경제 G7, G10에 올라가는 수준으로 갔습니다. 일본과 중국은 완전히 분단이 안 되서 양팔을 다 쓰면서 중국은 떠오르는 강대국이 되었고, 일본은 경제적인 강대국을 유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악조건과 60년간, 100년간의 배경을 놓고 우리의 성취를 보면 이걸 참 자랑스럽고 기특하고 절대로 이제 더 이상 이 성취를 놓쳐서는 안 된다 분단 때문에 오는 어떤 위협 때문에 우리의 이 악조건 속에서 이룩한 성취를 망가뜨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악조건이 많았습니다. 식민지 악조건, 분단 악조건, 분단 내에서 권위주의 정치 속의 악조건, 노동 조건의 열악 속에서 악조건, 언론 자유가 없는 악조건 등 모든 악조건 속에서 오늘을 이룩했습니다.

제가 1962년에 서울대학에서 석사과정 마치고 미국에 가서 예모리 대학에 갔는데 첫 유엔 데이에 학교 학생처에서 유학 온 학생들을 위해서 큰 잔치를 했습니다. 저는 한국사람이 그때도 20여명 되어서 외국인으로 많은 편이고 그러니까 마땅히 초청을 받았지 했는데 유엔 데이날 초청장이 안 왔어요. 이상하다 해서 가 보니까 유엔 데이 날 아프리카, 동남아 등 우리보다 못하다고 생각한 나라의 기가 꺾혀 있어서 물어보니까 그게 유엔에 가입한 나라들의 학생들만 부른 것입니다. 그때 저는 가슴이 뻥한 슬픔을 느꼈습니다. 일본 유학생보다도 우리 유학생이 더 많고 아프리카보다도 많은 데 유엔 회원국이 아니기 때문에 왕따 당하는 구나 그런 슬픔을 느꼈단 말입니다. 그게 62년인데 요즘은 각종 국제회의, 적십자 회의부터 시작해서 나가보면 우리들을 보는 시선이 옛날과 전혀 다릅니다.

요즘 우리를 보는 건 두 가지로 봅니다. 제가 2년전에 적십자 총회를 유치했는데 1000여명 가까운 적십자 유엔 총재, 간부들이 오셨는데 그분들이 놀라는데 적십자 대규모 총회에서 호의(hospitality)와 효율성(efficiency)이 함께 가서 회의를 이렇게 마친 경우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효율성에 대해서 제일 놀라는 것입니다. 효율성에서 제일 놀라는 건 선진 서구라과와 미국 사람들입니다. 저녁에 롯데 월드 잠실 쪽에서 천명 가까운 사람들을 디너하는데 7시에서 9시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모든 순서를 다 끝내니까 9시 2분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적십자 기구에서 제일 높은 분이 있는 데 같이 끝내고 일어서서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와서 서니까 정각 9시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래요 'What a Korean efficiency!' 자기가 적십자 운동에 수십년간 제네바에서 총회하면서 한번도 이런 대규모의 식사를 이렇게 하는걸 못봤다. 어떻게 천명을 그렇게 먹이느냐. 나는 뭐가 놀라우냐 늘 그렇게 한다 그러니까 모든 걸 절도있게 하고 순서 연결 그런걸 다 하고 나서 이걸로 건배하고 끝내는 데 2분전이고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오니까 9시 정각인데 이렇게 대규모 국제회의가 이렇게 끝나는 건 처음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 카트리나 때문에 모은 돈 200억을 가지고 갔는데 국제부 수석 부총재가 조지 워싱턴 대학에서 식사를 대접하면서 그러더라고요, 코리안 타임이라는 말 아느냐 하니까 모른데요. 이제는 코리안 타임이 우리의 심벌이 아닙니다. 효율성입니다.

그런데 누가 아프다고 생각을 하면 120, 130명 훈련시켜서 증상을 듣고 현대 아산병원으로 직통으로 수송, 자동차를 가지고 굉장히 빠르게 했습니다. 아픈 사람이 있는 곳에 뛰어가는 속도가 놀라웠습니다. 어떤 사람이 회의 중에 나한테 와서 아프리카에 돌아가면 대통령 취임한다고 하는데 급하게 국내 사정이 있어서 회의 중간에 떠난다고 하길래, 그렇느냐 해서 비서를 불러서 내 차로 공항에 모셔라 했습니다. 근데 그건 상상도 못하더라고요. 제네바 회의를 할 때 비행장에 가는 건 다 자기가 알아서 해야 되고 기껏해야 대사관에서 도와주는데, 차로 모셔라고한 이러 저러한 것들이 회의 100점 효율성 100점 이게 한국의 이미지입니다.

■ 남북 관계의 진전

지난주에 어느 언론 기관에서 저를 한국 경제 지도자 중에 한 분으로서 특별 시상하려고 생각한다고 해서 나는 자격이 없다 경제인도 아니고 경제 지도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이다라며 사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비서를 통해서 나는 자격이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직접 설명하러 오겠다고 해서 지난 주말에 와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한반도가 군사긴장이 생기고 평화가 위태롭다는 인식이 생기면 투자하러 올 사람이 없다. 또 국내도 경제가 활성화될 수 없다. 그러니까 총재님께서 항상 한반도 평화, 한반도의 안정을 강조해 주시는 건 경제인에게 가장 기본적인 악조건을 제거해 주는 것이다라는 것이지요.

이런 평화의 소중함을 위해서 헌신하는 기업인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감히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현대아산은 모든 경제활동의 가장 기본요건인 평화의 조건을 만드는 일을 위해 손해보면서 일을 많이 해 온 기업입니다. 그 손해는 역사가 보전해 줄 것입니다. 제가 2003년 11월달에 금강산 5주년 행사에 왔을때 자료를 들여다 보니까 그때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때 이야기한 것 중 중요한 걸 리마인드 시켜드리겠습니다. 지금 간부들 가운데 그때 그 현장에 없었던 사람이 태반이니깐요. 지난 5년간 현대아산의 고뇌 헌신으로 남북관계가 이정도나마 진전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정부가 마땅히 해야 할 민족사적 역할을 담당한 현대아산은 역사가 평가할 것입니다. 그간 금강산 관광은 단순한 관광이 아니었습니다. 민족화해 협력의 큰 계기가 되었고 남북간의 신뢰를 구축하는 데 큰 디딤돌이 되었습니다. 민족의 명산, 아름다운 산, 감동의 산을 보면서 민족의 자긍심을 새삼 느낍니다. 남과 북을 초월해서 민족의 영원한 자산 이 금강산은 영원히 불변할 것입니다. 이념 체제는 변하지만 민족의 아름다운 산하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는 반세기의 벽, 증오의 불신의 벽, 분노와 분쟁의 벽이 바로 허물어지는 것을 이번에 육로를 통해서 오면서 제가 느꼈습니다. 내가 이것을 보면서 그간 이만한 공적이 가능했던 것은 두 정 회장의 헌신적 공로 덕분이었고 시장 논리만 아니라 민족과 동포애의 논리로 금강산 관광을 열어서 이것이 통일과 평화의 관광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개성공단의 성공으로 이어지고 마침내 경의선 동해선을 거쳐 TCR, TSR로 연결되면 한반도가 세계 물류 중심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한반도가 동아시아 번영과 평화의 중심축이 될 것입니다.

3. 인도주의의 길

■ 정보화시대의 기업 이미지 원천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여러분이 기업인이니까 기업인이기 때문에 기업의 이미지가 시장에서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이야기하고 제 이야기를 끝내겠습니다. 요즘 21세기에 들어와서 시장은 아주 무섭습니다. 냉혹합니다. 이유는 뭐냐하면 21세기 시장의 주인인 소비자와 20세기의 주인이 전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모더니즘과 포스트 모더니즘이 다른 것 보다 더 다릅니다. 20세기 100년간은 국가나 기업이 시장의 수요자들의 취향을 조정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소비자를 광고효과를 통해서 소비자의 취향을 바꿀 수도 있고 그래서 선택에 영향을 줄 수 있었습니다.

제가 1962년도에 미국 에모리 대학에 처음 갔을 때 첫 기숙사 방에 들어가서 TV를 켜고 나에게 딱 들어오는 멜로디가 내가 5년동안 내내 밤낮으로 들어서 지금도 기억하는데 그때 Things go better with Coke이라는 거였습니다. 그게 뭔가 처음에 유학 가서 보니까 영어로 문장을 쓰는 게 아니고 노래니까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에모리가 코카콜라 대학이거든요. 에모리대학 총장은 자동으로 코카콜라 상임 이사가 됩니다. 우리가 학교 안의 벤딩머신에서 5센트로 사먹을때 학교 밖에선 10센트, 다임을 했습니다. 6개월까지는 그게 무슨 말인지 멜로디만 들어왔는데 그게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코카콜라 마시면 만사형통’ 그 말입니다. 그게 미국의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굉장히 머리 속에 깊이 박혀 가지고 미국 어린아이들은 물먹기 전에 코카콜라 맛을 먼저 알 정도로, 모든 패스트푸드와 코카콜라를 먹는 게 우리 소고기와 김치가 맞듯이 맞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사람들은 태반이 코카콜라에 중독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게 됩니다. 기업의 이런 광고가 ‘파블로프의 개’ 처럼 효과를 냅니다. 이건 정치적으로

도 그렇습니다. 20세기가 전체주의가 크게 두 개 있었습니다. 스탈린과 히틀러. 완전히 이권 국가가 정보를 독점해서 일정한 방식으로 그 정보를 유입시켜서 내면화 시키면 모두 ‘하이 히틀러’ 라고 되는 것입니다. 전체주의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20세기가 정치 시장의 논리가, 국가와 시장의 논리가 소비자와 국민은 저권 내가 주무르기에 달렸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쿠데타가 일어나면 어느 나라든지 제일 먼저 점령하는 곳이 방송국입니다. 사자가 사슴 잡을 때 목덜미를 먼저 물듯이 그 목덜미가 신문사와 방송국입니다. 그래야만이 조종할 수 있단 말입니다. 흰 걸 검다고 이야기해서 인식을 바꿀 수 있었는데 그것이 20세기까지는 거의 그 관점에 왔습니다.

21세기에 들어와서 정보화가 되고 세계화가 맞물려 가면서 정보화되니까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때까지는 그렇다고 생각하고 받아먹기만 했던 타율적인 개체, 소위 ‘reactor’가 ‘actor’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reactor’는 자극에 대해서 대응만 하는 파블로프의 개같이 수동적인 존재였는데 이것이 아주 주체적인 ‘actor’로 변했는데, 이게 가능하게 된 것은 쌍방향 통신이 일상화됨으로써 그렇습니다. 지금 쌍방향 통신을 제일 많이 쓰는 나라 중에 하나가 한국입니다. 유비쿼터스가 되어서 시간과 장소를 초월해서 소비자 자신이 사용자 자신이 원하는 정보를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에서 자유롭게 받아볼 수 있는 그런 때가 됐습니다. 이게 이 방면에 제일 빨리 가는 나라가 우리나라 같고 미국보다 더 빨리 가는 것 같고 일본보다 더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시장의 소비자나 정치에 있어서 소비자로서의 국민은 일방적으로 위에서부터 듣는 이야기에 따라서 침흘리는 개가 아닙니다. 오히려 결정과정에 있는 기업이나 국가에 대해서 자기 의견을 아주 담백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젊었을 때 감히 청와대 근처에 가지도 못했는데 대통령한테 탄원서 내는 건 겁이 나서 못했습니다. 요즘은 구장이나 면장한테 하듯이 청와대에도 얼마든지 자기 입장을 이야기할 수 있는 때가 됐습니다. 그 말을 뒤집어서 말하면 대중 매체나 대중 사회에서 일방적으로

당하던 소비자가 이제는 주체로써 자기들끼리 ‘연결성’을 확장시킵니다. 이 ‘연결성’이 개인 생활에서는 유비쿼터스가 되어 가지고 여행하다가 내 집에 불 켜나 해서 확인하고 문닫았나 확인하는 거지만 그게 사람과 사람간의 ‘연결성’이 글로벌하게 먼저 가면서 이 사람들이 결정적 선택을 통해서 역사의 흐름을 잡아가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아무리 선택 폭이 넓어지고 강해진 소비자에게 ‘Things go better with Coke’이라고 해 봐야 안먹혀요. 이제 쿠데타 일어나서 방송국 차지한다고 해서 국민들이 들을 것 같습니까? 이제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이제는 전부 다 자기가 무릎에 인터넷 놓고 게릴라같이 저항할 수 있는 통제 불능한 시대가 됐단 말입니다.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시장이 무섭다는 얘기입니다. 시장을 알보는 기업 절대로 안됩니다. 선택의 폭이 넓어진 소비자를 움직이는 힘은 무엇이나 하면 역시 감동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도덕적 감동을 줘야 됩니다. 저 기업은 도덕적으로 훌륭하다 도덕적 감동을 주는 방식 중에 가장 큰 것은 무엇이나 하면 함께 아파하는 기업이다. 우리와 함께 아파하고 우리 아픈 곳에 제일 먼저 달려오는 기업이다. 그리고 보니까 적십자와 비슷합니다. 우리 적십자가 아픈이 있는 곳에 제일 먼저 달려갑니다. 그런데 적십자는 달려가 봐야 줄게 없습니다. 위로나 할 뿐인데 기업은 줄 게 있습니다. 가장 아픈 곳으로, 가장 빨리, 그리고 가장 정당하게 성실하게 달려가는 기업이 소비자로부터 가장 큰 사랑을 받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소비자 머릿속에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려면, 그 이미지가 단순히 잠시 있는 게 아니고 오래오래 남아있는 이미지를 심어주려면 가장 아픈 곳에 가는 그런 기업이 되어야 합니다.

사실 제가 내일 아침 금강산에 갑니다. 1년만에 이산가족 상봉이 있어서 가는데 나는 50년만에 60년만에 만나는 저 가족들의 아픔을 저는 이해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족 가운데는 이산가족이 8촌내에는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이산

가족이 있는 사람들, 얼마 전에 YMCA 이사장 하시는 부산에 사시는 김동수씨께서 나한테 호소를 하시면서 사실은 그 어른이 82세이고 형제들이 있는데 특별히 만나게 해 줄 수 없느냐 하는 의사이신데, 해 줄 수가 없습니다. 뽕뽕이를 돌리니까 9만 3천명 가운데 그렇게 알아서 해 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산가족이라고 해도 전혀 힘이 없습니다. 그건 돌려야 되니까. 그래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마는 그 마음 아픈 사람들이 내일 모레 만납니다. 나는 이산가족이 만나서 껴안고 얼굴 부비고 할 때 마다 그것이 민족의 분단에서 오는 가족과 인간의 고통을 덜어주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 쌍방향 통신 시대에 기업이 소비자로부터 진실로 감동적인 이미지를 심어주는 울림이 있는데 그 울림이 오래 갑니다. 그래서 그 울림으로 인해서 그 제품이 오래오래 팔려서 거기에 국가 발전, 사회 발전, 민족 평화에 도움이 되는 그런 것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는지 몰라도 적십자는 145년된 국제 기구인데 노벨 평화상을 네 번 받은 유일한 기구입니다. 유엔도 한번 밖에 못 받았어요 국제적인 봉사기관 로타리도 있고 라이온스도 있지만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갖고 있는 봉사기구로 노벨상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 내리 네 번 받았던 것은 적십자의 기본 정신이 가장 아픔이 있는 곳에, 그 아픔이 전쟁에서 오든, 그 아픔이 재난에서 오든, 그 아픔이 심각한 질병에서 오든 혹은 그 아픔이 잘못된 제도 운영에서 오든 아픔이 있는 곳에 가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노벨 평화상을 받는 감동을 불러일으켰는데 결국 나는 적십자 정신과 기업 정신이 같이 가는 것 이것이 기업을 살리는 길이 아니겠는가. 그런 각도에서 보면 그간 우리가 현대아산, 현대그룹이 손해를 보면서도 해 온 업적에 대해서 제가 평가를 합니다. 아직도 남북 사업에서 경제적인 수익은 별로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앞으로 깊어야 할 것도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 특별한 인식을 갖는 국민들이 좀 더 많이 생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인도주의에 입각한 남북관계 설정

끝으로 21세기를 지금도 좌우의 시각에서 보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좌파다, 저 사람은 너무 우파다, 저 사람은 너무 진보적이다 라고 말하는데 진보적이다 아니다 라는 말은 아직도 적실성이 있지만 좌파다 우파다 이견 적실성이 전혀 없는 이야기입니다. 뭐냐 하면 21세기에 가장 선진국과 가장 선진적 인물, 지도자가 어떤 사람이나. 군사 강대국, 군사력 때문에 교만해 지는 강대국, 그리고 돈이 많기 때문에 목이 뻗뻗해 지는 강대국 그건 강대국이지만 선진국은 아닙니다. 선진국은 무엇이나, 막강한 군사력과 경제력을 가지고 인간의 고통이 있는 곳에 제일 먼저 달려가는 나라가 가장 선진국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김구 선생이 해방되시자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부자 나라가 되기를 원하지 않고 우리나라가 정치적으로 강력한 나라가 되는 것도 원치 않고 군사적으로 강대하게 되는 걸 원치 않습니다. 나는 우리나라가 문화적으로 강한 나라,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김구 선생이 별로 교육을 안 받으신 분인데도 미국 유학, 유럽 유학하고 돌아온 우리 옛날 아버지 세대 할아버지 세대 지도자들 보다도 훨씬 더 문제 핵심을 보신 것 같습니다. 선진국, 선진기업, 선진인간은 어떤 인간이나? 억울한 고통이 있는 곳에 성실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달려가는 사람, 기업, 국가입니다.

내가 여기서 억울한 고통이라고 한 것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고통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부끄러운 고통이 있는데 그건 줄여줄 필요가 없습니다. 부끄러운 고통은 당해야 합니다. 은행 털어서 돈 벌려고 하다 붙잡혔다 그건 고통 당해야 합니다. 감방에 가서 고통당하는 게 사람들에게 필요합니다. 부끄러운 고통, 그건 줄여줄 필요가 없습니다. 또 자랑스러운 고통이 있습니다. 그것도 줄여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건 장려해야 됩니다. 자식을 위해서 헌신하는 엄마와 아빠,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애국시민들의 고통, 그런 고통이 있습니다. 민족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더 손해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고통은 참 자랑스러운 고통입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억울한 고통입니다. 쓰나미가 와서 지진이 생겨서 죽는 것 억울하지요 또 나와 관계없는 전쟁이 터져서 무력 분쟁이 생겨서 죽는 사람들, 그리고 질병이 걸린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어린아이가 에이즈 걸릴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4, 5세 된 아이들이 에이즈 걸리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질병에서 오는 고통을 이제는 기업도 그 사람들이 소비자이기 때문이 아니라 소비자가 아니어도 돌보아 주는 이미지, 그것이 시장으로부터 오래오래 사랑을 받는 비결입니다. 나는 바로 그런 뜻에서 빌 게이츠나 버핏이 돈을 그렇게 많이 내 놓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마이크로소프트를 보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사람들이 빌 게이츠하면 윈더폴 가이 라고 하는 이유가 그는 자기의 부를 참 억울한 사람을 위해서 주는데 자기가 다녔던 하버드를 위해서 내는 놓는 것이 아니고 저 아프리카의 여성, 그 중에도 병들어서 시들어 가는 어린이와 여성을 위해서 엄청난 돈을 내 놓거든요. 그래서 그게 울림이 있습니다. 적십자 회의를 지난번에 아프리카에서 했는데 빌 게이츠 그런 사람들은 울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21세기 기업이 시장에게 주는 감동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감동을 가지시기를 바라고 이미 여러분들은 손해보면서 감동을 주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손해 너무 많이 봐도 기업은 움직일 수 없으니까 고민이 있겠지만 그 고민을 간부들이 서로 나누면서 자랑스러운 현대아산의 아름다운 동포애적, 인도애적, 평화 지향적 정신을 확장하고 심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HRI**

정리 및 교열

남충현 연구원 (netch30@hri.co.kr) ☎ 02-3669-4142

HRI 經濟 指標

➤ 主要 經濟 指標 推移와 展望

		주요 경제 지표 추이와 전망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P)	2007(E)
국 민 계 정	경제성장률 (%)	3.8	7.0	3.1	4.7	4.2	5.0	4.2
	최종소비지출 (%)	4.9	7.6	-0.3	0.4	3.9	4.5	3.7
	민간소비 (%)	4.9	7.9	-1.2	-0.3	3.6	4.2	3.5
	총고정자본형성 (%)	-0.2	6.6	4.0	2.1	2.4	3.2	2.5
	건설투자 (%)	6.0	5.3	7.9	1.1	-0.2	-0.4	1.5
	설비투자 (%)	-9.0	7.5	-1.2	3.8	5.7	7.6	4.5
대 외 거 래 통 관 기 준	경상수지 (억 \$)	80	54	119	282	166	61	-30
	무역수지 (억 \$)	93	103	150	294	232	161	100
	수출 (억 \$)	1,504	1,625	1,938	2,538	2,844	3,250	3,560
	증가율 (%)	(-12.7)	(8.0)	(19.3)	(31.0)	(12.0)	(14.4)	(9.5)
	수입 (억 \$)	1,411	1,521	1,788	2,245	2,612	3,094	3,460
	증가율 (%)	(-12.1)	(7.8)	(17.6)	(25.5)	(16.4)	(18.4)	(11.8)
기 타	소비자물가 (평균, %)	4.1	2.7	3.6	3.6	2.8	2.2	2.8
	실업률 (%)	3.8	3.1	3.4	3.7	3.7	3.5	3.7
금 융	원/\$ 환율 (평균, 원)	1,291	1,253	1,192	1,145	1,024	955	925
	국고채금리 (평균, %)	5.7	5.8	4.6	4.1	4.3	4.8	4.4